荷江 朴齊璟의 보령전원시 고찰

김 명 래*

1. 머리말
2. 하강의 생애와 시문학
3. 하강의 보령전원시
4. 맺음말

초록: 荷江 朴齊璟은 대한제국이 태동한 1897년부터 2년간 보령군수를 역임한 관료이며 시인으로서, 800여 수에 달하는 漢詩를 썼음에도 시인으로서 명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강은 보령군수시절에 전 작품의 사분의 일에 해당되는 200여 수나 되는 시를 썼는데 그만큼 보령의 산천에 대한 깊은 애정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하강의 작품은 지금도 보령의 산천이 생동하고 있으며 계절마다 바뀌는 풍광이 살아나고 있어 경이롭기까지 하다. 하강의 시는 보령의 산천을 그야말로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따스한 봄의 한 가운데로 몰입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정겹고 포근하여 享受에 젖게 하고 있다.

조선의 한시는 자연을 주제로 설정한다 해도 대부분 忠孝•五常같은 修己의 시풍을 견지하고 있었던 데에 반해, 하강의 전원시에서는 그와 같은 전래의 시풍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하강의 전원시는 사실적이고 전원의 정취를 자연스럽게 形象한 시라고 볼 수 있다. 하강은 陶淵明의 詩風을 숭상하면서 수많은 전원시를 썼는데, 늘 자연 현상이 녹아 있는 實景이었고 그 배경은 농민들이 살고 있는 田園이며 田家를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하강이 보령의 자연을 노래한 詩를 '보령전원시'라고 특정하고, 이 보령전원시를 대상으로 하강의 시세계를 살펴보고 당시 보령의 실상에서 논의하였다. 하강의 보령전원시는 지역학으로서 文學的 위상도 크기 때문에 지역문화 차원에서도 조명해 보았다.

핵심어 : 荷江 朴齊璟, 保寧郡, 新城, 大川橋, 海山樓, 田園詩.

* 蘇營文化硏究所 所長.

1. 머리말

이글은 대한제국 시기에 荷江 朴齊璟 시인이 保寧郡守로 2년간 재임하면서 보령의 자연을 노래한 135편(200수)의 시를 묶어 '보령전원시'라고 특정하고, 그 시를 대상으로 荷江의 문학성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또한 하강의 보령전원시는 사실적이면서 자연스럽다는 면에서 일반 한문시인들의 작품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도 뚜렷한 색깔이 있으며, 보령이란 地域學的 가치도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역의 문화적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해보았다.

하강은 1897년부터 1899년까지 保寧郡守를 역임한 구한말의 관료이며 시인이다. 하강이 보령에서 지은 작품들의 내용은 구한말 격변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보령의 산천이 생동하고 있는 듯 계절마다 바뀌는 정경이 살아나고 있어 생동하는 느낌이 들어 감동적이다. 하강의 시는 보령의 산천을 그야말로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따스한 봄의 한 가운데로 몰입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정겹고 포근하여 향수에 젖을 수밖에 없는 田園詩로서의 진가를 느끼게 하고 있다. 하강은 시대적으로 新詩가 등장하면서 전래의 한시가 퇴조하는 개화기의 거센 파고와 외세의 물결 속에서, 조선의 끝자락까지 한시로 일관하였으나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지는 못하였다.

조선의 전통 한시에서는 자연을 주제로 설정한다 해도 대부분 관념적이면서 忠孝·五常같은 修己의 의미를 내포하는 시풍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강의 한시에서는 두드러지는 전래의 시풍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강의 전원시는 사실적이고 전원의 정취를 자연스럽게 形象한 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하강은 대부분의 조선의 한문 시인들과 다르게 사실적인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는 陶淵明을 추종하는 전원시인이다.

하강은 문학적으로는 陶淵明의 「歸去來辭」적 사상을 귀감으로 삼고 있었다. 도연명을 師表로 받들어 숭앙했기에 문학적 동질성은 여러 작품에서 用事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陶潛에게 和答하는 형식이었다. 언젠가 전원으로 돌아가 땅을 일구며 몸소 농사짓기를 염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강의 작품에는 항상 자연 현상이 녹아있는 實景이었고 그 배경은 농사와 결부된 농민들이 살고 있는 田園이었다.

하강은 67·68세일 때 보령군수 시절이 그의 일생 중에서 가장 평안했던 시절로 보이고 창작 활동도 가장 왕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2년 동안에 쓴 시가 전 생애 작품의 25%에 이르는 것이 그렇다. 이것은 하강이 보령의 목민관으로서 보령의 산천에 대한 애착심이 두터웠기에 특별한 애정의 發露에서 탄생된 작품으로서, 보령의 자연과 교감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상을 투시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地域史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하강은 조선말 漢詩人으로서 韓末四大家처럼 명성을 얻지 못했고, 지금까지 학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편이다. 따라서 하강의 문학을 다시 조명해 보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보령전원시를 대상으로 하강의 文學性을 살펴보고 또, 지역이 문화적 측면에서 보령전원시 작품을 분석하여 서로 연관되는 지역의 역사도 고찰해 보기로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하강의 보령전원시를 파악함으로써 하강의 문학과 당시 보령의 역사적 정황을 이해하고, 하강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에 있다.

2. 하강의 생애와 시문학

1) 하강의 생애

하강은 1831년(순조 31)에 태어났다. 박제경의 자는 景玉이고 호는 荷江이며, 본관은 潘南이고 아버지는 仁壽이다. 하강은 40세에 출사하였는데 문장이 뛰어났다고 전하며, 그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출생지며 수학기에 어디에서 살았는지 교우관계 등의 행적은 자세히 알 수 없다.

하강의 문집인 『荷江文稿』1권 첫머리(3a-5a쪽)에 실린 하강의 年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831년(순조 31) 11월12일 출생
1847년(헌종 13, 17세) 12월 晉州柳氏와 혼인
1870년(고종 7, 40세) 10월 庚午文學에 추천되어 관직 시작
1876년(고종 13, 46세) 1월 효릉참봉, 2월 진사, 1878년 6월 선공감 부봉사
1880년(고종 17, 50세) 1월 상서원 직장, 형조좌랑
1882년(고종 19, 52세) 3월 증산현령, 9월 면천군수 임용, 1883년 6월 체임
1885년(고종 22, 55세) 3월 전시 병과, 8월 홍문관부수찬
1887년(고종 24, 57세) 1월 홍문관 부응교, 10월 南學敎授
1888년(고종 25, 58세) 2월 성균관 사성, 1890년 8월 호조참의
1891년(고종 28, 61세) 12월 숙부인 유씨 卒
1892년(고종 29, 62세) 윤6월 승정원동부승지(정3품 당상관)
1897년(고종 34, 67세) 2월24일 보령군수 임용, 1899년 1월20일 체임
1902년(고종 39, 72세) 6월 장례원 少卿, 궁내부 특진관(종2품)[1]

하강은 궁내부 特進官직에서 1903년 11월에 해임되자 沔川으로 귀향했던 것으로 보이고, 1910년 8월의 경술국치 이후에 바로 앓아누웠으며 다음 해에 81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다. 한편 하강의 관직 공백기를 살펴보면, 1893년의 관직 기록은 『승정원일기』에 경무대와 경운궁의 행사장에 참여한 게 2회였고, 이때의 직책은 副護軍(五衛의 종4품관)이었다. 이후 1894년부터 1896년까지의 3년 동안 관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관직을 떠나 도연명의 無爲自然을 구현하려는 첫 단계로 거처를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농사를 지으면서 田園詩를 구가할 수 있는 면천의 蒙山이다.

하강은 출생지와 성장지가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자신이나 선조의 연고지가 면천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2] 그러나 면천군수를 9개월간 역임한 연고가 있기

1) 한말 궁내부는 勅任官에 大臣과 特進官, 奏任官은 비서관 문서과장 외사과장 통역관 등, 判任官은 主事로 구성되어 있었음.

2) 朴齊璟, 『荷江文稿』1권, 7a, (두 번째 시), 「丙子正月 以庚午文學薦拜孝陵參奉 以乙亥秋南宮試解 二月中司馬試 四月往拜陰城祠堂 因陪二兄榮掃于靑陽沙店親山 退而志感」: "관직에 오른 후, 4월 陰城의 祠堂에 가서 절을 올리고, 둘째 형을 모시고 靑陽 沙店의 아버님 산소에 성묘하고 돌아와서 감개를 적었다"라는 내용에서 하강의 선대는 陰城과 靑陽에 연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 시기에 자신의 귀향지로 설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하강문고』「卜居」시에서 “면군 성동에다 이제 집을 마련했네(沔郡城東此卜居)”와「山家晩興」시에서 “몽산 깊은 마을 서까래 몇 개 오막살이(蒙山深巷數椽廬)”라는 시구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특정할 단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몽산에 거처를 마련했다는 것이 되겠다. 이처럼 하강의 귀향지이면서 귀거래의 종착지는 면천의 몽산이 분명해지고 있다.

2) 하강의 시문학

荷江은 벼슬길에는 현달했으나 문학적으로는 조명을 받지 못했다. 하강의 詩文은『荷江文稿』[3]에 수록되어 있고,『하강문고』는 규장각 소장(古 3428-20)으로 표지 서명은『荷江稿』이다.[4] 李南鍾은『荷江詩譯註』서문에서 하강의 문학적 위상을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 漢詩史에서 하강의 시대를 愛國啓蒙期로 규정하고, 그 대표적인 시인으로서 韓末四大家를 꼽는다. 秋琴 姜瑋(1820-1884), 滄江 金澤榮(1850-1927), 寧齋 李建昌(1852-1898), 梅泉 黃玹(1855-1910)이 그들인데, 학계에서의 평가대로 대체로 벼슬길에서 불운했던 것과는 반대로 시로써 이름을 높이 드날린 인물들이다. 하강은 사대가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그들과 달리 시인적 명성은 얻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하강은 사대가들과 국가패망이란 동란의 시대를 함께 했으면서도 벼슬길에서 현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不平之鳴’의 전담자로 인식되어 왔던 불운한 시인 일반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있었다.[5]

김택영과 황현은 이건창을 통해 중앙문단에 등장하여[6] 文名을 날렸지만, 하강은 그러한 한말사대가와 교류하거나 문단에 작품을 발표하는 등 문인 활동은 자제

---

3) 朴齊璟, 위의 책

4)『荷江文稿』는 모두 6권 6책인데, 시 813수는 권1·2에, 권3에는 敎書敎旨 등 91편, 권4·권5에는 致詞 등 100편, 권6에는 記·銘·頌·對策 등과 上疏 등이 편제되었다.

5) 朴齊璟, 이남종 역, 2006『荷江詩譯註』, 도서출판 역락.

6) 김덕수, 2009「寧齋 李建昌의 漢詩 批評 硏究」,『한국한시연구』17, 한국한시학회 209-246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강은 오로지 官人으로서 충실할 뿐 시인의 명성은 애써 감추었다는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문단 활동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예가 그렇다.

하강은 한말사대가와 같은 시대에 유학을 배운 漢詩人으로서 姜瑋는 하강보다 10여 세 많고 金澤榮·李建昌·梅泉 黃玹은 20여 세 아래인데, 이중에서 황현의 시풍은 自然詩로서 사실적 관점에서 읊은 하강의 전원시와 유사하게 보인다. 매천은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위대한 시인으로 이는 주로 현실주의적 경향의 작품들로 받은 평가이다"[7]라고 했듯이 작품의 대부분이 섬진강과 구례 중심인 산수자연을 삶의 현장으로 형상하였다.

하강 역시 보령과 면천을 중심으로 그 산천과 백성들의 田家를 관념적 요소를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 묘사된 전원시를 지어 그의 시는 생동감이 느껴지고 소박한 전원의 인정이 넘친다.

이처럼 荷江은 梅泉과 같은 한문 시인임에도 조선의 도학적인 시풍을 벗어나 사실적 자연관을 가지고 한시를 창작했다는 유사성이 있으나, 그들이 서로 교유하거나 문학적 교류가 있었다는 전언이나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각각 독자적으로 사실적인 자연시와 전원시를 창작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堅持에서 기왕에 논의[8]된 매천의 문학성은 하강의 문학관과 유사하므로 참고할 요소가 있다고 본다. 어쨌든 하강은 조선이 국운이 다할 때까지 전원을 동경하며 田家를 중심으로 田園詩를 즐겨 쓴 전원시인이다. 그의 시에서는 梅蘭菊竹[9] 등 관념이 주입되어 있는 자연물 대상의 작품은 별로 눈에 띄지 않으며, 修己 등과 같은 도학적 시풍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하강은 유교적 학문을 바탕으로 한문시를 지었지만 전통 한시 작법은 배제한 채 사실적 전원시를 창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강의 문학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다.

---

7) 이희목, 2010「梅泉 黃玹의 山水詩 小考」,『한문학보』23, 우리한문학회, 3-24면.

8) 이희목, 위의 논문; 金晋郁, 2017「梅泉 黃玹의 自然詩 硏究」,『문화와융합』39(5), 한국문화융합학회, 767-794면.

9) 하강은 전 작품이 576편이나 되지만, 詩題에 梅를 포함 것 1편, 菊를 포함 것 3편, 竹를 포함 것 1편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관념이 대상이 아니라 자연물로서의 표현에 그쳤다.

하강의 작품성에 비추어 한말사대가처럼 문단에서 유명세를 타지 못한 탓이라고 본다.

하강에 관해 권영락(2010)[10]은 "그는 憂國詩를 쓰는 시인으로서 … 늘 고독하고 가득한 근심과 고뇌를 풀고 싶어 자연을 찾았지만 고민을 풀 수가 없어 한껏 술을 먹고 취할 수밖에 없고 힘없는 구한말 관료 지식인의 고뇌가 그의 시에 잘 나타나 있다."고 평했는데, 고민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시고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억지스럽게 보인다.

하강은 고뇌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도연명이나 이태백과 같이 飮酒詩를 즐겨 쓰는 시인 특유의 嗜酒 습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 기울어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우국시를 쓰는 시인"이라는 표현은, 하강의 시문 중에서 우국시라고 분류될만한 작품이 「傷時漫詠」등 서너 편에 불과하므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본다.

또한, 하강의 詩를 전원시로 분류하여 분석하려는 시도가 없었으며, 특히 본고에서 착안하여 主題로 삼고 있는 보령군수 재임 시에 창작된 '보령전원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荷江의 '보령전원시'로 특정하여 살펴보는 것은 하강의 문학관과 보령에서의 특별한 창작 활동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강의 詩文學을 살펴보기 위한 前提로 荷江과 陶淵明의 '歸去來'라는 문학적 인식과 자연관, '西湖'라는 의미, 그리고 하강의 '飮酒'에 대하여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0) 권영락, 2010『荷江 朴齋璟 詩文學 硏究』, 계명대학교 석논: 憂國詩에서도 田園이 보이고 전원을 노래하면서 나라 걱정을 놓지 못하는 복잡한 두 개의 심사가 시에 잘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 나라가 위태로울수록 그의 시에 나타난 전원은 늘 아름답고 정겹게 표현된다. 하지만 정작 그 아름다움 속에 함께 있는 그는 늘 고독하고 걱정이 가득한 근심과 고뇌를 풀고 싶어 자연을 찾았지만 고민을 풀 수가 없어 한껏 술을 먹고 취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구한말 관료 지식인의 고뇌가 그의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하강의 도연명 사상과 '歸去來 文學觀'을 살펴보자.

하강의 시는 陶淵明(356-427)의 田園詩와 無爲自然 사상이 깊이 내재되어 있어, 하강은 도연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 하강의 일상은 歸去來辭의 지배를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늘 연명의 시구를 새기면서 그에 대한 和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강의 「四時詞」는 이를 잘 대변하고 있는 칠언율시가 되겠다. 이 시의 尾聯은 오언절구의 전형이 되는 도연명의 「四時」[11]를 들어 和陶詩로 노래하고 있으나, 연명의 화답이 없으니 하강은 아쉬워한다. 그래도 화답이 드물다고 했으니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드물지만 있기는 하다는 것이니 그들의 대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가 지금은 어떠한지,
> 나는 연명 시에 화답하나 화답은 없구나.
> 四時佳景今如許　我和陶詩和我稀 〈「四時詞」 일부〉

하강은 陶淵明의 歸去來라는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詩에 표현하고 있지만, 벼슬을 과감하게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가는 실천의 용기보다는 벼슬자리에 만족하는 관료로서의 면모가 더 두드러지기도 한다. 하강은 출사 이후에 몇 년 정도 관직을 떠난 공백기는 있었으나 73세라는 늦은 나이까지 조정에서 봉직했다는 사실이 그렇고, 40세라는 늦깎이 出仕로부터 수많은 벼슬자리를 거쳐 종2품관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 현직에 만족하며 더 현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어쨌든 하강은 작품 창작에서 淵明의 시문을 用事하고 點化하는 추종자였다. 「自怡堂雜歌」 두 번째 수의 미련과 「대신 발창하는데 아관을 보내며」 두 번째 수의 미련에서 '닷 말 봉록'[12]의 의미를 살펴보자.

---

11) 「四時」: "春水滿四澤 夏雲多奇峯 秋月揚明輝 冬嶺秀孤松"

12) 『宋書, 隱逸傳』, 『古文眞寶』 文篇, 「歸去來辭」: "我豈能爲五斗米拜腰向鄉里小兒(내 어찌 닷 말의 곡식 때문에 촌뜨기 아이놈에게 허리를 굽힐 수 있겠느냐)"는 陶淵明이 다섯 번째 은퇴이자 마지막 은퇴를 결정하고 남긴 글.

닷 말 봉록 따져보니 부족한 게 아니거늘
이 한목숨 세상에서 따로 무얼 구하겠나.
五斗等來非不足 此生於世更何求〈「自怡堂 雜歌」 일부〉

닷 말 봉록에 허리 굽히니 백발이 부끄러우나
항아리 셈만으로 여생 어찌 괴롭히랴.
五斗折腰羞白髮 如何甕算惱餘生〈「送亞官替發倉之行」 일부〉

주지하다시피 '닷 말 봉록'은 도연명이 마지막으로 관직을 버리고 은퇴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다. 그러나 하강이 읊은 시에서 닷 말 봉록의 의미는 연명의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양상이다. 하강은 '봉록의 가치가 만족스러우니 다른 일을 구할 필요도 없으며, 백발의 늙은이가 허리를 굽혀야 할 때도 있겠으나 어찌 항아리를 깨는 妄想만으로 여생을 괴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처럼 하강은 시적으로는 연명의 전원시에 附和되고 있는 것이지만, 실생활에서만큼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官人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하강은 栗里 같은 자기만의 전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진행하였다. 하강은 「몽산의 봄날」미련에서 자기의 전원이 도연명의 율리보다 나을 거라고 국화를 내세워 비교를 하는데,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다렸다 울 밑에 핀 노란 국화 보게 되면
도연명의 율리원보다 훨씬 나을 거네.
待看籬下黃花發 絶勝淵明栗里園〈「蒙山春日」 일부〉

둘째, 西湖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보자.

하강의 시에는 60편에서 西湖가, 40편에서는 호수가[湖上]라는 시어가 표현되고 있는데, 전 작품 576편 중에서 100편이나 되는 많은 시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西湖를 상징하는 하강의 심상적 의미는 간단하게 간취되지 않는다. 하강에게 있어서 西湖는 지리적으로 면천 몽산 자락의 별장[別墅] 앞에 아주 작은 연못일 개연성이 커 보이지만, 서호는 하강의 마음속에 내재된 이상향을 표상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강이 西湖라는 詩語를 통해서 자신의 處所와 處地를 隱喩하였다고 본다면, 하강에게 있어서 西湖는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의지가 내재된 이상향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西湖라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예시된 10개의 작품마다 서호의 뉘앙스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處所를 표현하고 있는 많은 시구 중에서 5번째 구는 西湖가 하강의 집 부근이며 서호에는 별장[別墅]이 있다고 한다.

① 서호 외진 땅의 구름 노을 갇힌 곳에 西湖地僻鎖煙霞 …
② 집이 서호 곁 구름과 물의 고장 있어 家在西湖雲水鄉 …
③ 돌아오니 거칠어진 옛 전답 남아 있네 歸來猶有舊田荒 …
④ 근년 들어 호숫가에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있네 年來湖上却歸耕 …
⑤ 하강의 별장이 서호에 있다 荷江別業在西湖[13] …

⑥ 병들어 서호 가에 누우니 번뇌에 휩싸이네 臥病西湖惱此身 …
⑦ 서호에 허연 머리 지금의 이 몸이네 白髮西湖見在身 …
⑧ 서호에 십 년 세월 어부 도롱이로 늙어가네 西湖十載老漁衰 …
⑨ 호수가 삶이란 그저 담박할 뿐 湖上生涯惟澹泊 …
⑩ 십 리 너른 호수에는 이슬비 비껴 내린다네 十里平湖細兩斜[14] …

荷江의 이상 세계는 "서호는 그려내기 어렵고 써내기 어려우나(西湖難畵亦難書), 서호가에 밤마다 꿈을 꾸네그려(西湖夜夜夢中身), 서호 밝은 달빛이 외로운 배에 가득하네(西湖明月萬孤舟)"[15]와 같이 노래하듯이 마음속에 설정하여 두었던 세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시라 하겠다.

때로는 중국 杭州의 西湖를 연상하면서 蘇東坡에 심취되었을 것이며, 보령군수로 재직 시 관내에 있는 蘇營(충청수영성)에 들러서 읊은 시에서 "서호의 가없는 경치가 모두 소영에 있네(西湖無限景 盡是在蘇營)"[16]라는 표현 속에는 중국의 蘇

13) 박제경, 앞의 책: 「還山秋晩」, 「山中書懷」, 「還家述懷」64a, 「書懷」114b.
14) 박제경, 앞의 책: 「山齋病吟」, 「任澗松來訪」, 「蒙墅晩春」, 「春日書懷」35a.
15) 박제경, 앞의 책: 「村居晩興」, 「憶雲養尙書金公允植」60b, 「寒食日偶吟」71a.
16) 박제경, 앞의 책: 「蘇營卽事」79a.

州와 항주의 서호를 은유하였다. 이처럼 蘇營이라 불리는 충청수영성에서의 옛일을 회상하면서 “서호는 정녕 누가 주인인지(西湖誰是主人翁)라고 반문하였다. 「新城書懷」시에서는 하강의 고향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보령군수 시절에 서호를 그리워하는 “서호에 밝은 달이 어찌 다함이 있을까 꿈결을 쫓다보니 고향동산에 이르렀네(西湖明月何窮已 夢裏相隨到故園)”에서는 고향이 엿보인다.

하강을 자주 방문하는 친구로서 任澗松은 여러 차례 시제에 등장하는데, 함께 읊은 「與任澗松共賦」에서 “君子亭 앞 연잎에는 비가 내리고(君子亭前荷葉雨, 頷聯), 예전 꿈은 아련하게 죽루에 남아 있네(舊夢依依在竹樓, 頸聯), 그지없는 서호에 밝은 달빛 비치는데(無限西湖明月下, 尾聯)”에서 서호는 君子亭 앞에 君子池[17]를 가리키는 것이고, 고향 또한 그 언저리를 암시하고 있으니 면천으로 보인다.

셋째, 하강의 飮酒詩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飮酒詩[18]에 관해서는 陶淵明과 詩仙 李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문학적 소재이다. 淵明을 추종했던 하강의 경우에는 음주가 주제는 아니었지만 酒醉에 관한 시어가 포함된 시가 137편이나 되어 전체 작품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하강의 시에서는 술이 단골로 등장하여 취기가 풍기고 있는 것이다.

『하강문고』의 첫 번째 시에서부터 ‘탁주’가 나오고, 네 번째 시에서 ‘술이 친구되니 흰옷 입은 이가 보내오고(酒爲親知白衣送)[19]’라고 도연명의 일화를 用事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시에서는 ‘중국의 黃酒가 향기롭고’, 여덟 번째 시에서 ‘한잔 술 모임’이 아쉽고, 열 번째 시에서는 ‘한잔 술로 밝힌 관사의 촛불’을 읊조리고 있다.

이처럼 문집의 첫머리에 배치된 10편의 시 중에서 절반이 酒醉詩로 확인되는 것과 같이, 하강에게 있어서 嗜酒는 일상생활이면서 탈속의 한 방편으로도 보이는데 「秋夕」외 6편의 酒詩에서 한 구씩만 들어보자.

① 나그네 시름 삭이는 데는 술만 한 것이 없고 遊者銷愁無似酒 …

---

17) 「1872년지방지도, 면천」: 면천읍성 동문 밖에 표시된 君子亭, 君子池.

18) 陶淵明은 전작품 155중에 20수, 李白은 1059수 중에 183수가 飮酒詩였다.

19) 白衣는 흰옷 입은 사람으로 술을 보내주는 관리 또는 친구를 뜻한다.

② 벼 타작 소리 중에 가득찬 술동이 打稻聲中酒滿盆 …
③ 누구와 얘기하며 술잔 급하게 오갈까 說與何人快倒觴 …
④ 몽롱하게 취해서 잠이 드나 깨우는 이 없어 昏昏醉睡無人喚 …
⑤ 한잔 술을 은근하게 녹음 속에서 기울이고 杯酒慇懃綠陰裏 …
⑥ 만 섬의 술만이 내 시름을 달랠 수 있을 거야 秪緣萬斛我愁消)[20] …

가득찬 술동이가 있으나 얘기하며 주거니 받거니 할 친구가 없다면 너무나 쓸쓸한 일이다. 취해서 잠이 들어도 깨워야할 급한 일이 없는 한적한 곳이니 시름을 삭이고자 술을 마신다고 그랬지만 너무나 유유자적한 풍경이다.

따라서 음주시는 도연명이나 이백처럼 일상적인 嗜酒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강은 보령읍성[新城]의 內衙를 自怡堂이라 이름 짓고 한잔 술을 기울이고 봄꿈에 빠져든다. 지방관으로서 坐起하고 있는 중에도 음주를 즐길 수 있었으니 하강의 호시절로 보인다.

3. 하강의 보령전원시

하강은 576편(813수)의 시 중에서 보령군수 재임기간(1897.2~1899.1) 2년 동안에 135편(200수)이나 되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렇게 하강은 보령의 산천에 애정을 가지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러운 보령전원시를 남긴 시인이다. 이로 인해 120년 전 보령의 정취에 몰입될 수 있는 전원시를 감상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조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조선시대에 보령 땅을 밟은 시인묵객들은 천하제일 정자로 회자되던 永保亭과 揖翠軒 朴闇의 시에 이끌려서 오게 된 선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명승지로 각광받았던 姑蘇城(충청수영성)에서 永保亭·姑蘇臺·寒山寺 등의 정취에 취해 영보정 제영시를 쓰는 게 전부였고, 여타 보령의 자연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20) 박제경, 앞의 책:「孝寢直中卽事」9b,「山村秋事」10b,「秋後遣懷」64b,「新安雜詠」83a,「自怡堂雜詠」99b,『荷江文稿』2권:「秋夕」3a.

그러나 하강은 보령군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그 정황을 사실적으로 노래하였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보령의 자연에 관한 시를 하강만큼 많이 쓴 인물도 없다고 본다. 하강은 특히 보령의 산천을 그림 그리듯 감칠맛 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기에 그의 田園詩는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강이 보령군수로 부임한 시기는 67세가 되는 1897년 2월이다. 이 시기는 조선 전래의 부군현 제도가 郡制로 바뀌는 때로 보령군의 위상은 4등급 군에 속했다. 군의 형세는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농토가 적어 자급하기에 버거운 편이었다. 관내 서쪽 해안에 위치한 금신면 소성리(현 오천면)는 충청수영이 소재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왕래하고 대규모 군수물자가 거래되는 군사도시였으나, 2년 전에 廢營이 된 상태로 그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실정이었다.

군의 북쪽에 해안선은 천수만이 깊숙하게 甕巖浦까지 湖와 같은 수변을 이루며, 서쪽과 서남쪽 해안선은 굴곡이 변화무쌍한 가운데 육지 안쪽으로 깊숙이 조수가 들고 갯벌이 드넓었다. 군의 북동쪽은 烏棲山(790m)이 홍주와 경계를 이루면서, 남으로 뻗은 산줄기는 군을 동서로 분리시키며 그 중간에 위치한 鎭堂山(350m)은 군의 진산이었고 그 서쪽자락 끝에 군의 治所인 新城이 자라잡고 있었다. 이 산줄기의 동쪽 지역은 吾三田面과 靑蘿面이 있었는데, 북쪽에는 오서산 동쪽에는 白月山(560m) 남쪽에는 聖住山(780m) 줄기로 둘러싸인 산골이었다. 그리고 군의 남쪽에 대천에는 인근에서 가장 큰 대천시장이 있었다.

이와 같은 보령현은 新村·新城·新安 등으로 불리었고, 이에 따라 보령현의 客舍는 新城館이라 불렀다.[21] 때는 동학농민혁명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은 터에 관내의 충청수영 폐지로 지역의 인심마저 흉흉하였고 게다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의 내정간섭으로 국권이 침탈당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보령에서의 하강은 시를 지으며 너무나 한가롭게 보이기도 하여, 보령고을은 급변하는 정국에서 예외인 듯 보이는데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정취라 하겠다. 「還山」에서 "산 절로 한가한 때에 나도 또한 한가롭다(山自閑時我亦

21) 荷江은 보령군수 재임 시 新城館을 시제로 新城館詠懷외 2편, 新城을 시제로 新城卽事외 5편, 新安을 시제로 新安雜詠외 3편의 작품을 지었다.

閑)"와 같은 結句는 하강의 자연관이 그대로 녹아있는 분위기로 볼 수 있다. 보령의 산천의 전원적인 분위기가 은근하게 무르익고 있었던 때에 하강이란 시인을 군수로 맞이한 것은 보령군으로서 크나큰 행운이 되었다.

하강의 시에서는 과장된 표현이 없고 일상과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관념적이지 아니하고 욕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가난까지도 가감 없이 자연의 일부로 노래할 수 있었다. 한 목민관으로서 정사에 관한 의지는 희미하여 잘 나타나지 않지만, 백성들의 빈곤을 근심하는 대목이 자주 보이는 것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곧 전원이기 때문이다. 인생과 자연은 잘 결합되어 있는데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이란 굴레와 궁상이 늘 붙어 다닌다. 그래서 그의 시는 사실적으로 진솔하고 담백하다. 도연명의 시를 平易하다고들 하면서 '平淡한 표현 속에 고결한 기품'이 있다고 거론하는 것처럼 하강의 시에서도 곱씹을수록 그러한 맛이 우러나는 것이다.

전원시에 대한 개념은 선행연구자들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는 自然詩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황민선(2015)의 정의를 들어보자.

> 자연 대상을 형상화하는 방법과 작자(또는 화자)의 시각의 차이에 따라 山水詩, 田園詩, 田家詩로 나뉜다. 즉 자연이라는 대상은 동일하지만, 이를 형상화하는 작자의 시각과 이에 따라 그 시각이 시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따라 자연이라는 범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 田家) 먹고 살기 위한 현실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원림은 거기에서 현실을 理想鄕으로 꾸며줄 수 있는 장치의 의미를 지닌다.[22]

田園과 田家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였는데, "전원이 자연에서 인간의 삶에 관계된 광의의 개념이라면 전가는 거기에서 인간이 실재로 가꾸고 일구는 현실적 공간에 집중하는 협의의 개념"[23]으로 볼 수 있다.

---

22) 황민선, 2015「다산의 전원관 연구 동향」,『국어문학』59, 국어문학회, 99-122면.

23) 남재철, 2007「自然詩의 意味와 韓國에서의 展開樣相」,『東方漢文學』33, 동방어문학회, 103-138면.

新城館은 보령군의 客舍로 新城에서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殿牌[24]를 봉안하여 왕권을 상징하였고, 朔望日에는 망궐례를 올렸으며, 각종 의례를 집행하는 장소로서 국가통치의 권위가 지방에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성한 장소이다.

「신성관에서 회포를 읊어보다(新城館詠懷)」 작품에서는 군수로서의 의지가 결연하다.

내가 와서 사월 달은 녹음이 시작되고
관청은 깊숙하나 바다에 접한 곳.
새 울음 속에서 온종일 책을 보니
꽃 진 후에 어느 때나 송사를 들으리오.
보리밭 들판마다 누렇게 구름처럼 모여 있고
고치를 널어놓아 집집마다 흰 눈과도 같구나.
오두막에 사는 백성들 원망은 하지 않을지
즉묵(卽墨)[25]의 대부처럼 칭찬 못 받아 부끄럽다.

我來四月綠陰初　館閣深深接海居
終日看書啼鳥裏　幾時聽訟落花餘
貽牟處處黃雲合　曬繭家家白雪如
蒲屋蒼生怨咨否　愧無卽墨大夫譽
〈「新城館詠懷」,『荷江文稿』卷一, 2수〉

이 시는 둘째 수에 고사가 인용되는 부분이 보이지만 시골 읍치의 정경을 사실적으로 담담하게 읊은 시이다. 이 시에서 살펴볼 때, 송사가 전혀 없는 곳이 아니라 약간의 쟁송은 있었던 모양이다. 조용한 봄에 온 종일 독서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하였는데 꽃 지는 때에는 송사가 몇 번 있었나 보다. 수령칠사 중에 詞訟簡은 소송을 간략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이다. 그러나 無訟事가 첫째로 좋은 것이며, 使無訟 정도면 편안한 수령자리라 할 수 있다. 이 詩에서는 송사는 굳이 사또가 나서지 않아도 처리가 잘 된듯하다.

---

24) 1896년(건양 1) 8월부터 殿牌는 闕牌로 改號.

25) 『史記』「田敬仲完世家」: 齊나라 威王은 정치를 대부들에게 위임하였는데, 卽墨의 대부가 동쪽지역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一萬戶에 봉했다.

곧 보리를 거둬들일 것이니 보릿고개는 넘긴 셈이며, 하얀 고치가 집집마다 눈처럼 싸였으니 농가에 여유가 있어 보이나, 그래도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보이나, '흰 고치'는 푸르른 계절에 흰 눈처럼 새하얗게 빛난다는 詩語 선택이 신선하고 상큼하고 부업을 하고 있는 농가의 여유가 보이는 것을 표현한 듯하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시를 지어도 修己를 대상으로 삼아 창작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하강은 그러한 시풍에서 벗어난 시인이라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예외를 두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시는 군수로 처음 부임하여 객사에서 자기의 소회를 토로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맹세이기 때문이다. 선정을 베풀어 卽墨의 대부처럼 칭찬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셋째 수는 시문을 생략했으나 경련에서 "淮陽 비록 척박하나 汲黯이 다스렸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보령이 비록 척박하나 거듭해서 汲黯처럼 잘 해보겠다는 다짐이며, 도연명처럼 退隱하고 면천의 몽산으로 언제라도 돌아갈 것을 암시하고 있다.[26] 또 한편으로는 늙어서 군수가 되었으나 낮술을 마시고 해질 녘에야 깨어나서 꾀꼬리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한가한 여유를 즐기는 생활이 보여서 陶淵明 식의 귀거래는 괜한 허사로도 보이는 면이 있다.

新城에서 남쪽 20리에는 대천장[大川市]이 있는데 보령 지역에서 가장 큰 場市였고 이 대천(현 보령시 대천동)은 木忠面 지역이었다. 본군의 최남부 지역이나 남포군으로 가려면 대천천 하류에 있는 大川橋를 건너야 했다. 이 돌다리[石橋]는 한내돌다리[27]라고 불렸으며 조수가 들어오면 물에 잠기는 다리로 「1872년 지방지도(보령부)」에도 표시되어 있다.

하강이 읍성에서 南行하면서 노래한 「대천교 도중에서(大川橋途中)」를 감상하며 시의 내용을 살펴보자.

---

26) 도연명은 자급하기가 불가능한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하강은 귀거래를 위한 준비를 몽산에 해두었으며, 이미 아들에게 전답을 물려준다는 시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도연명보다는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7) 大川橋는 대천천 하류에 있었던 돌다리로 『여지도서』 및 「1872년 지방지도, 보령부」에 명시된 石橋이다. 현재는 교량 일부를 인근에 이전 전시하고 있다.

남쪽으로 한내돌다리에 가는데
가마 곁에 버드나무 푸릇푸릇 그림자는 흔들리고.
오월 달 오서산[28] 아래 길에는
숲속에 셀 수 없는 꽃들이 나를 향해 뽐낸다.
　　肩輿南出大川橋　橋柳靑靑影動搖
　　五月烏棲山下路　林花無數向人嬌

오월도 잠깐사이 망종이 지나가고
봇도랑에 빗물 가득하니 모내기 한창인데.
온종일 자갈밭 일구며 불 놓는 농부
소 모는 그 소리는 곡인 듯 노래인 듯하구나.
　　五月看看芒種過　野渠成雨插秧多
　　盡日巖田耕火者　叱牛如哭又如歌

저물어 청연역[29]을 향해 역참 길에 돌아드니
농가에선 비 올 기색에 채소밭에 북을 돋고
가도 가도 도리어 기쁜 건 신성이 가까워지는 것
오사[30]의 개인 빛이 눈에 가득 들어오네.
　　暮向靑淵驛路廻　圃家欲雨菜根培
　　行行却喜新城近　烏史晴光滿眼來
　　〈「大川橋途中」,『荷江文稿』卷一, 전문〉

이 시는 읍성에서 대천교까지 오고 가는 연도의 풍광을 파노라마처럼 전개시키는 묘사가 아름답고 속도감이 난다. 가마의 속도가 얼마였는지, 요즈음 달리는 차창밖에 스치는 산천을 묘사하듯 하였고, 지나가는 오서산 줄기의 숲속에 흐드러진 꽃동산의 정취를 질박하게 노래하고 있다.

들에서는 알맞게 내린 비가 논에 고여 모내기가 한창인데, 자갈밭을 일구는 농부의 소몰이 소리가 哭인지 노래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니 너무나 대비적이며

28) 烏棲山은 보령 · 홍주 · 결성에 걸쳐있는 산이다(해발 790m).
29) 보령 읍성에서 남쪽으로 5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驛站이다. 현재의 館山里 역말
30) 烏史는 烏棲山의 북동쪽에 위치한 洪州牧 烏史面을 가르킨다. 烏棲山을 일명 烏史山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구슬프다. 산간에서 농사짓는 백성에 대한 하강의 측은지심이 여실히 나타나는 구절이라 하겠다. 역참 길에 들어서면 신성까지 5리 밖에 남지 않았으니 기뻐지겠지만, 비오려하자 채소밭에 북을 돋아 준다는 농가의 일상을 포착해내는 것은 하강이 그만큼 농사에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다.

갈 때는 원래 산명대로 烏棲山이라고 했는데, 돌아올 때는 "烏史의 개인 빛이 가득 들어온다"고 한다. 시인의 시선이 이쪽보다 저쪽, 저산 넘어(홍주목 오사면)로 향했던 것은, 이편은 아는 곳이고 저편이 궁금하기 마련인 心思로 볼 수 있다. "自然스러운 풍격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시인 자신에게 眞情과 實感이 있어야 하며 興趣와 意趣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심령의 상태에 도달해 있어야 가능하다"[31]고 하였는데, 이 작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여운을 느끼게 한다.

新安은 보령을 일컫는 여러 호칭 중에 하나인데 新安을 詩題로 「新安雜詠」외 3편의 시를 지었다. 하강은 군수로서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처럼 自適할 수 있는 기회는 보령의 평온한 자연과 소박한 민심이 바탕이기도 하지만, 승정원 동부승지로서 조정의 정3품 당상관이었던 위광으로 6품 한직에 있다하여도 웬만한 외풍은 차단되었을 것이다.

「신안잡영(新安雜詠)」시가 2편인데 그 첫 번째 작품을 감상해 보자.

절물을 살펴보며 시품 속에 들어오니
강남땅 방초들은 정말로 우거졌다.
날이 갠다고 비둘기들은 동서로 지저귀고
물방울 튕기며 잠자리는 위아래로 허리를 맞추는데.
시원한 대자리 맑은 바람결에 누운 매화각에서
짧은 도롱이 두르던 옛 벗과의 버들 둑을 추억하네.
취하여 혼미하게 잠에 드니 부르는 사람 없고
반쪽 문안 회화나무 그늘에서 낮은 베개에 기대있다.

節物看看入品題　江南芳草正萋萋
報晴鳩語東西應　點水蜻腰上下齊
凉簟淸風臥梅閣　短簑舊雨憶楊堤

31) 배다니엘, 2000「祖詠 山水田園詩의 풍격특성 고찰」,『중국학논총』10, 141-165면.

昏昏醉睡無人喚　半戶槐陰一枕低
〈「新安雜詠」,『荷江文稿』卷一, 첫째 수〉

하강은 보령을 강남땅이라고 부르며 풀포기 하나까지 살펴보는 깊은 관심과 따스한 성정을 엿보이고 있다. 하강은 이 新城에서 보령고을 전체를 자기의 田園으로 아우르면서, 보령 산천에 대해 詠懷하였고 또 전원의 풍광을 詠嘆하였다.

새벽에 비둘기 우는 소리를 귀담고 있는가했는데, 시선은 한낮에 잠자리 떼의 짝짓기 비행을 관조하면서 옛 벗과의 추억을 회상하다 잠이 든다는 한적한 詩意가 아기자기하여 정운미가 넘친다. 전통적인 한시에서는 볼 수 없는 사실적 묘사에서 하강의 思想이 엿보이는 시라 할 수 있다.

또, 함련에서 "잠자리는 위아래로 허리를 맞추는데"와 같은 둘째 구의 표현은, 도학적이고 五常 같은 것을 지향하는 전통 한시법에서는 금기에 해당될만한 파격적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하강은 예사로 자연스레 쓸 수 있는 사실주의적 문학관을 당돌하게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自然스러운 풍격을 담았다는 것은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眞情과 實感을 인위적 수식보다는 표현되었기에 가능한 상태로 하강은 이미 그러한 경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안에서 잡다하게 읊음(新安雜詠)」두 번째 시를 살펴보자.

곁마 달리듯 빠른 절기를 은밀하게 재촉하여,
제비 갑자기 가버리고 매미가 또 왔구나.
오사산 가운데에 저녁놀이 걷히고
봉당성[32] 밖에는 황혼 빛에 밀물이 호수 같다.
청춘시절 서울 향한 갈망은 어찌된 일인지[33]
백발에 수령으로 남쪽에 와서 재주 없음이 부끄럽고.[34]

32) 『保寧郡誌』 1991, 735-737면: 鳳堂城은 高南부락의 해발 107m 산에 위치하며, 1430년 이전까지는 보령현의 읍성이었고, 성벽 형태가 남아있다.

33) 『新論 · 祛蔽』: 西笑(西向而笑)는 장안을 서쪽으로 바라보면서 웃었다는 것은, 서울에 대한 갈망을 나타낸다.

34) 南爲는 "자신이 수령이 되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뜻으로, 『莊子』의 '奚以之九萬里而南

이 늙은이 외물을 따라 경쟁심 없으며
합포(合浦) 진주는 밤마다 빛이 나니 의심치 말아라.[35]

驂驛節序暗中催　燕去忽忽蟬又來
烏史山中殘照斂　鳳堂城外晩湖廻
靑春西笑緣何事　白首南爲媿不才
此老無心隨物競　浦珠夜夜莫相猜

비바람 쓸쓸히 내려 홀연히 성에 가득하고
서쪽 이웃에서 다듬질 그치니 또 닭이 우는데.
노년에 잠이 없어져 늘 홀로 앉아서
창으로 새벽빛 드리움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네.

風雨凄凄忽滿城　西隣砧歇又鷄鳴
老年無睡每孤坐　喜見窓間曙色呈
〈「新安雜詠」,『荷江文稿』卷一, 3·4수〉

같은 제목의 「신안에서 잡다하게 읊음(新安雜詠)」의 셋째 수는 칠언율시이고 넷째 수는 칠언절구 형식인데, 세월이 가고 황혼 빛이 밀려오는 것을 관조하면서 청춘에 꿈꿨던 야망을 겸연쩍어한다. 그러면서도 合浦의 진주라는 고사를 빌어 목민관으로서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오서산은 이 시뿐만 아니라 여러 시에서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또 오사산이라 했는데 하강에게는 별칭이 더 좋았나 보다. 봉당성을 내세워 보령현의 역사를 흘리면서 성 남쪽 하천까지 조수가 들어온다는 지리적 설명을 하면서, 孟嘗[36]고사에서처럼 하강은 군수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다. 넷째 수에서는 노년에 불면의 밤을 어떻게 보내는지 고통인 듯하지만, 그러나 새날이 밝아오는 새벽빛을 기쁘게 맞이하며 또 하루가 시작되는 즐거운 일상을 기다리는 삶을 노래한다.

爲'에서 따온 것이다.

35) 『後漢書·循吏傳·孟嘗』

36) 後漢 때 合浦郡에서 眞珠를 무리하게 채취하여 고갈되었는데, 孟嘗이 군수로 부임하여 채취방법을 개혁하자 일 년 만에 진주가 되돌아 와서 주민들이 다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사.

청연역은 읍성에서 대천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데 5리 떨어져 있다. 이 「청연역에서 짐을 내고 밤중에 돌아오다(靑淵驛發倉夜歸)」를 감상해 보자.

유월은 훌쩍 날아 돌아온 칠월 머리에
나무마다 서늘한 매미 울어 또 다시 가을이다.
산이 열린 북쪽 땅에는 뭉게구름 흩어지며
물은 남쪽 하늘까지 차오르고 오랜 장마 비는 그쳤다.
한 가닥 마을의 연기가 청연역 나무에 걸려있고
반 조각 주렴에 비친 달은 창루에 들어온다.
가마 타고 곧장 동문으로 향해가니
집집마다 참외밭에서 소후(邵侯)를 배우는구나.

六月翩回七月頭　凉蟬樹樹又新秋
山開北地頑雲散　水盡南天積雨收
一匹墟烟橫驛樹　半規簾月入倉樓
肩輿直向東門去　瓜圃家家學邵侯
〈「靑淵驛發倉夜歸」,『荷江文稿』卷一, 전문〉

하강은 發倉[37]하려 驛에 들렸다가 밤에야 돌아왔다. 계절은 여름의 절정인가 싶은데 어느덧 가을이 오고 있다. 역참에서 일을 마치고 신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참외밭을 지나가며 고사의 邵侯[38]가 연상되었다. 집집마다 맛있는 참외가 상큼해 보이는 농촌이 여유가 있어 보인다.

수령의 거처는 內衙라고 하는데 대개 동헌 옆이나 후면 일곽에 양반가처럼 꾸몄다. 하강은 보령군수로 부임하자 내아의 안채인지 별채인지 모르겠지만, 거처로 정하고 自怡堂이라고 편액 하였다.[39] 여기서 自怡堂이란 陶潛의 "술 단지와 잔을

37) 發倉: ①창고에 물건을 냄〈『현종실록』 각주〉, ② 창고에 곡식을 내어 흉년을 구제함〈『성종실록』 각주〉

38) 『三輔黃圖』: 廣陵의 邵平은 秦나라 東陵侯였는데 진나라 멸망 후에 평민으로서 동문 밖에서 참외농사를 지었다. 그 참외는 맛이 있었고 東陵瓜라고 하였다(門外舊出佳瓜 廣陵人部平爲秦東陵侯 秦破 爲布衣 種瓜靑門外 瓜美 故時人謂之東陵瓜).

39) 「別朴御使任齋」: 청산이 주인 되고 백운이 따르나니/ 이로부터 당호를 자이라 걸어뒀네(靑山爲宰白雲隨 自此堂顏場自怡), 白雲은 어사 박임재이다. 친구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

당겨 자작하고, 뜰의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기쁜 표정을 짓네(引壺觴以自酌 眄庭柯以怡顔)"라는 『귀거래사』의 시구에서 따온 것이다.

이처럼 하강은 도연명의 시세계에만 빠진 게 아니라 애주가로서도 그를 답습하고 있다. 自怡堂이란 스스로 기쁜 얼굴로 즐거워지는 집이니, 하강은 이 처소에서 많은 시적 영감을 받으며 시상을 가다듬었다.

'자이당'을 시제로 해서 남긴 시가 5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자이당에서 잡다하게 읊음(自怡堂雜詠)」은 자신의 심사를 읊은 작품이다.

우연히 나그네로 남쪽 고을에 부임하니
종일 궂은비와 비바람이 그치지 않는구나.[40]
백발로 이제야 태수로 와서 부석(鳧潟)이 부끄럽고[41]
푸른 산 어느 곳에서 은거처[菟裘][42]를 찾을지.
가을 들어 강물소리는 숲 속 절[43]에서 들려오고
산 기운이 한밤중에 해산루[44] 누대 위로 밀려오네.
이웃 노인이 전하는 밤중에 하는 말 들어보니
올해 추수는 여러 가지로 근심은 없을 거라네.

偶然爲客在南州　苦雨終風也不休
白髮今來愧鳧舄　靑山何處覓菟裘
江聲秋入林間寺　嵐氣夜侵海上樓

쁜 일이겠는가. 서로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곳이니 自怡堂이 제격으로 보인다. 하강은 未率居 군수로서 시에서 나타나는 문맥으로 볼 때 내아의 작은 별채를 수선하여 거처로 삼고 편액 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1895년(고종 32)에 간행된 『忠淸道邑誌』「保寧邑事例」에서 "內衙今毁破"는 내아가 헐어서 파괴되었다는 것이며, 하강은 1897년도에 부임했다.

40) 苦雨終風은 '궂은비와 종일 부는 바람'이며, 東坡의 「六月二十日夜渡海」"苦雨終風也解晴"에서 用事한 것이다.

41) 부석(鳧潟): '神仙이 신는 신발'을 의미하며, 縣令에 대한 典故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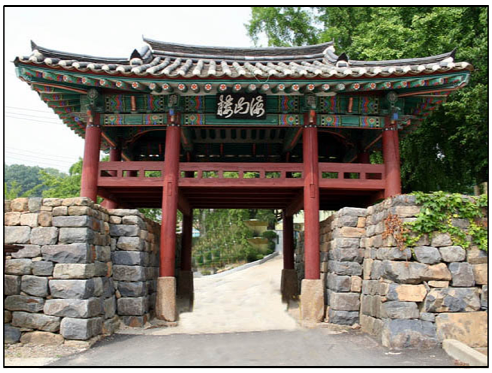
42) 토구(菟裘):' 늙어서 은퇴하여 살아가는 처소의 뜻. 原註: 노나라 은공이 "菟裘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은거하여 늙으려 한다(魯隱公曰, 使營拓瑛, 吾將老焉)."

43) 原註: 禪林寺의 스님이 와서 이야기했다(禪林寺僧來話).

44) 海山樓: 충청남도유형문화재 40호(1976)로 보령읍성의 官衙門이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누각형태로 팔작지붕이다.

聽得隣翁傳夜語　今年穡事庶無憂
〈「自怡堂雜詠」,『荷江文稿』卷一, 첫째 수〉

생각하지도 않은 보령에 부임했는데 날씨부터 반기는 것 같지도 않게 느껴지며, 늙어서 군수가 된 처지가 고사에 나오는 부석(鳧潟, 縣令)에게 부끄러웠고, 이래저래 은퇴까지 염두에 둔 심경을 고백하는데, 苦雨終風은 소동파의 시에서 "어찌하여 돌아가지 않고서, 여기 머물며 陶淵明에게 부끄러워하는가?"[45]에 대한 화답이다. 그러나 하강은 실제로 관직을 버릴 생각이 없었다.



〈그림 1〉 해산루

그래도 가을로 접어들어 선림사 스님으로부터 세상의 여론을 들었으며, 이제는 海山樓에 산기운이 자유로 통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인다. 尾聯에서는 올해의 추수가 걱정 없을 것이라는 노인들의 말에서 적이나 안심이 되니 근심이 지워지는 듯하다. 이처럼 이 시는 부임 초기에 하강의 고뇌가 보이나 꾸밈이 없어서 담백하다. 劉維崇은 "시란 사상의 결정이자 인격의 그림자이며 행위의 비침이다"[46]라고 하였다. 하강은 한적한 시골 분위기를 묘사한 전원시를 쓰면서 목민관으로서의 사명감과 고민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가을날 石峴의 判尹 李敎昌을 찾아가 밤에 돌아오며」는 읍성에서 십 리 정도 남짓한 금신면 돌고개에 이 판윤을 찾아갔던 내용을 읊은 시이다.

돌고개[47] 어렴풋한 십 리 길을 헤쳐
산속에 이 판윤의 소쇄한 집을 찾아갔네.

---

45) 『蘇軾詩集』卷八, 孔凡禮點校,「湯村開運鹽河雨中資尼」: 胡不歸去來, 滯留愧淵明
46) 劉維崇『陶淵明評傳』: 詩思想的結晶 詩人格的型影 詩行爲的寫照
47) 현재 보령시 오천면 갈현리 돌고개 마을(現도로명 돌고개길)

저 멀리 돛단배는 언덕을 가로질러 사라지고
어부의 피리소리 몇 곡조가 저 너머에서 들려온다.
풀 뜯는 소 가을 길은 비 내리는 숲으로 이어지고
새 쫓는 아침 들은 산만하나 너른 들판에는 벼가 뒤덮였네.
조용히 나막신을 신고 돌아오니 초승달이 좋고
해산루 북과 나발 소리 황혼녘에 울려 퍼지네.

石村十里路微分　瀟灑山房訪李君
遠影風帆橫岸去　數聲漁笛隔隣聞
放牛秋逕穿林雨　驅雀朝坪散稻雲[48]
幽屐歸來初月好　海樓鼓角動黃昏
〈「秋日訪石峴李判尹敎昌夜歸」,『荷江文稿』卷一, 전문〉

판윤 이교창을 찾아갔는데 이 판윤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소쇄한 집을 찾아가는 路程이 전부다. 이러한 정황만으로 이 판윤의 면면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멀리 빙도 뒤쪽으로 숨어버리는 돛단배를 비유하고 있는 무언의 표현이 새로운 시풍이라 하겠다. 시제와 연결되어야 할 본론을 은유법으로 도치시키고 시제와 동떨어진 전원의 정취를 주제로 삼은 것도 이채롭다. 隱者는 소재를 알 수 없는데 돛단배마저 숨어버리고 어부의 피리소리가 몇 번 들려오자, 돌아 올 수밖에 없지만 들판에 풍년이 그려져서 기쁘고, 해산루에 나발소리가 오늘도 무사하게 황혼을 맞이하니 아늑해진다. 따라서 시적 소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성격이 드러나고 하강은 자기의 관점을 경련과 미련에서 충분하게 읊조리며 끝내는데, 이러한 비유는 뛰어난 관찰력과 식견에서 발휘되는 필력으로 독자에게 감상하는 즐거움을 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결성현 출장은 처음이며 읍치에서 北行이다. 연도의 경치를 그림처럼 펼쳐 보인 「結城현에 査官으로 오가는 길에서(結城査官途中)」를 살펴보자.

푸른 버들 작은 마을에 아침연기 흩어질 때
방금 독바위[49]를 지나니 바로 廣川이네.

48) 稻雲: 넓은 들판을 뒤덮은 벼

49) 瓮岩浦는 靑所面에 속한 瓮巖里에 있는 포구였다. 독바위, 독배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1872

보리타작 소리는 술기운이 떠오르고
모내는 노래 속엔 풍년 소원 실려 있네.
수많은 꾀꼬리 산 나무로 날아들고
백로는 무슨 생각으로 무논에 앉는가.
오늘 나는 왔다가 돌아가려 하는데
산등성이 길에는 무성한 풀들만 우거졌네.

綠楊村落散朝烟　纔過瓮岩又廣川
打麥聲中浮酒力　插秧歌裏願豊年
黃鸝無數投山木　白鷺何心下水田
今日我來還我去　沿岡路熟草芊芊
〈「結城査官途中」,『荷江文稿』卷一, 첫째 수〉

결성으로 출장 가는 길인데 관내의 경계인 옹암포를 지나 결성현 광천으로 가는 연도에 정취 있는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수령이 타관으로 출장 가는 일은 兼官이나 査官으로 訟事나 獄事에 참여할 때이다. 이번 출장은 시제에서와 같이 사관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 시에서도 하강은 오고가는 路程의 아름다운 풍광을 스케치하고 있다. 그는 독배(독바위)라고 불리는 옹암포를 지리적인 면에서 적시하였고, 보리타작 소리와 모내기를 바라보며 술기운 넘쳐나는 풍년가에 안도한다. 경련에서 "백로는 무슨 생각으로 무논에 앉는가"라는 시의는 심각하게 사변적이라기보다 목민관의 마음이 드러나는 정취로써 자신을 반추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사관으로서 출장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詩語만큼은 시골의 풍경이 고스란히 표출되며 매우 소소한 소재들로 하여금 보령의 북부지역 분위기가 생동하고 있다. 특히 생동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묘사는 그만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령의 전원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田園詩는 전원의 생활이나 정경을 읊은 시이므로 사람의 생활이 게재되기 마련

년 지방지도, 보령부」에서는 靑所面 동리명에 '瓮巖'이 명시되어 있고 瓮巖浦가 표시되어 있다. 「1872년 지방지도, 결성현」에서 廣川面 동리명에 '瓮巖'은 명시되지 않았고, 保寧界 옆에 瓮巖浦가 표시되어 있어 당시에 瓮巖浦는 보령지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조선총독부의 『조선지지자료, 1911』 충남 396면에 "保寧郡 靑所面 瓮巖浦 독바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청소면 진죽리와 광천읍 옹암리 지역이다.

이고, 山水詩는 사전적으로 현실을 등지고서 산수만을 읊은 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정의로 볼 때, 「結城현에 査官으로 오가는 길에서」는 보자마자 농민들의 삶이 묻어나고 있는 정경이 포착되는 시이다. 이처럼 하강은 농민들의 생활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전원미를 느끼도록 승화시키는 작가의식이 있었고 전원시의 본령을 충실하게 고수했던 시인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보령의 명승은 현재 보령시 오천군 소성리에 소재한 충청수영성이었다. 수영성에는 조선의 문인이라면 평생에 한번은 꼭 가보고자 했던 永保亭[50]이 장관이었다. 조선의 문인들이 항상 따스하고 풍요로운 이상향으로 동경하던 중국의 蘇州를 충청수영에 각색하여 문학적 향수를 느끼도록 하였는데 그 중심이 영보정이다. 그러한 각색은 읍취헌 박은의 「營後亭子」 속에 은유되어 있었던 것이 실현된 것으로, 그 의도에 따라 충청수영성은 姑蘇城으로 각색되고 마침내 蘇城이나 蘇營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를 洞察하고 있을 하강은 군수로 부임하자마자 新城에서 西行 이십리 길을 재촉하여 영보정에 올라가 「영보정(永保亭)」제영시를 지었고, 또 다시 찾아와 영보정의 쓸쓸한 「영보정 경치를 대하며(永保亭卽景)」를 읊조렸다.

봄바람에 왔다가 또 갈바람을 맞고 보니
백발로 벌렁 누운 술 취한 노인일세.
누각은 난리 뒤라 황량하기 그지없고
강산은 그림 속 풍경인양 적막할 뿐이로세.

---

50) 김명래, 2020 「읍취헌 박은의 營後亭子 詩題와 관련된 영보정 창건내력 검토」, 『한국학』 160, 한국학중앙연구원, 469-501면.: 永保亭은 보령시 오천면에 소재하는데, 충청수영성 북쪽 구릉 우각부에 건립된 정자로서 전국 문인들의 발길이 조선시대 내내 끊어지지 않았고, 130여 문인들의 문집에서 확인된 영보정 제영시만 해도 200여 수가 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정자였다. […] 朴誾은 1503년 충청수영에 들려 「營後亭子」 5수를 지었다. 박은은 「영후정자」로 인하여 조선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부터 영보정 제영시의 전범으로 존숭되었다. […] 영보정의 勝景化는 오로지 박은의 「영후정자」로부터 基因된 것이다. 시인의 눈으로 통찰할 때는 대단한 奇觀이지만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는 실제의 경관은 그렇게 빼어난 것이 아닌 경우도 많다. 영보정은 박은이 기이한 意境과 작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다.

천년을 푸르른 두 소나무는 언제나 마를 것인지
세 그루 나무는 오히려 백일홍으로 피어났네.
자고로 유명한 것은 날개와 같다는 구절이니
박공 이외에 따로 이름난 사람 없네.

春風到此又秋風　白髮頹然一醉翁
樓閣荒凉離亂後　江山寂寞畵圖中
雙松何槁千年碧　三樹猶榮百日紅
自古有名如翼句　朴公之外更無公

자고로 이 누대는 호수 위에 떠있어서
보령 태수가 또 여기서 놀고 있네.
어룡은 날씨가 차가워 수많은 집에 밤을 드리우고
기러기 높이 울어 많은 돛단배에 가을이 왔네.
쌍오도는 성 한편을 휘둘러 감싸 있고
동쪽 들녘으로 오서산은 멀고도 아득하다.
지금 갠 날의 경치가 그지없이 아름답고
갈대와 버들이 호수가에 가득 자란다.

自古此樓湖上浮　保寧太守又玆遊
魚龍氣冷千家夜　鴻雁聲高萬帆秋
鰲島縈廻城一面　烏棲縹緲野東頭
晴景如今無限好　蒹葭楊柳滿汀州
〈「永保亭卽景」,『荷江文稿』卷一, 전문〉

자연이야 변함이 없지만 국력이 쇠퇴하여지면서 국권마저 일제에게 휘둘리는 정국과 국가의 關防인 충청수영까지 폐지된 시점에서 영보정이 온전하게 보이겠는가? 이런 때는 詩的 영감을 자유자재로 펼치기보다 憂國이 앞서 가기 때문이다.

영보정은 유존하지만 갑오개혁에 따라 폐영된 후 蘇城에는 적막감만 감도는데, 두 소나무와 백일홍 세 그루는 무엇인가를 토로하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다. 둘째 수 함련에서는 영보정 동쪽 천수만에 떠있는 雙鰲島와 멀리 烏棲山을 등장시켜 지리적 생동감을 주고 있다. 또, 이 시에서 첫째 수 미련에서는 읍취헌의 시 중에서 불후의 명구로 회자되는 「營後亭子」넷째 수의 수련에 언급되는 영보정의 영원한 주인 揖翠軒 朴誾을 用事한 것이다.

"땅은 새가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려는 형국(地如拍拍將飛翼) 누각은 한들한들 매인 데 없는 배 같아라(樓似搖搖不繫篷)[51]"는 영보정을 찾는 문인들에게 영보정 題詠詩의 典範으로 추앙받는 名句로써 널리 회자되었고 神技가 느껴졌다고 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읍취헌이 말하는 의미는 그 지형과 누각에 대한 절묘한 표현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은유하고 있는 또 다른 시적 의미는 사상적으로 교조적이고 답답한 조선이라는 틀에서의 탈출이 시도되었다. 중국의 蘇州를 이상향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 蘇城은,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이륙지이며 영보정은 언재라도 출항할 수 있는 매인 데가 없는 배로 보였던 것이니 소성은 바로 탈출구로 볼 수 있다.

하강은 또 영보정에서 한밤중까지 놀면서 영보정 전성기 때의 영화와 주옥같은 제영시를 회상하며 감회에 젖었을 것이며, 지역의 태수로서 영보정에서 놀 수 있는 순간만큼은 대단히 만족하였던 것 같다.

한산사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寒山寺는 廢寺되었고 다시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한산사에서(寒山寺)」분위기는 할 말을 잊게 한다.

빈산에 초목은 강을 격해 나눠졌고
옛 절에 종소리는 다시 들을 수가 없네.
남은 터는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니
주민이 가리키는데 먼 서쪽 구름이네.
空山草木隔江分　古寺鍾聲不復聞
借問遺墟可處在　居人遙指海西雲
〈「寒山寺」,『荷江文稿』卷一, 전문〉

한산사는 충청수영성에서 소성강 건너편에 있었던 충청수영의 직영 승군사찰이었다. 충청수영을 姑蘇城으로 각색하였으니 당연히 蘇州의 랜드마크인 寒山寺가 설정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한산사는 당나라 시인 張繼의 「楓橋夜泊」시로 유명해진 절이다. 그런데 이 詩에서 한산사는 아주 먼 옛날 일처럼 희미해졌다. 서쪽바다 구

51) 朴誾, 「營後亭子」, 『揖翠軒遺稿』 卷三, 일부.

름처럼 알 수 없다는 표현이 얄궂다.

「신성의 여름날(新城夏日)」 세 수 중에서 첫째 수에서는 제 때에 비가 내려 農心이 편안하고 이에 시인은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

망종도 안 됐는데 제 때에 비가 내려
신성에서 일찍 모내는 걸 처음 보게 되고.
숙도[52]가 어찌 늦었냐는 노래는 멈추어라
도연명의 「귀거래사」 읊으려 하고 있다.
송사를 듣던 뜰에는 꽃들이 외롭고
글 읽는 창 밖에는 대나무가 아름답다.
세간의 신진들이 늙은이를 경시하는데
술잔 앞에서 수염에 물들었다 웃지들 말아다오.[53]

芒種未過雨及時　新城初見早秧移
休歌叔度何來暮　欲賦淵明歸去辭
聽訟庭前花寂寂　讀書窓外竹猗猗
世間新進輕年老　莫笑樽前好染髭
〈「新城夏日」,『荷江文稿』卷一, 첫째 수〉

이 작품에서는 하강이 목민관으로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나이 불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여유에서 부드러운 표현과 정감이 느껴진다. 이처럼 하강은 정무에도 달관하고 그의 일상을 비춰줄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농민들이 모내기를 일찍 마쳤으니 한시름 놓게 되었다. 이제 보령고을을 잘 다스리고 있으니 구태여 고전의 叔度에 대한 거론을 하지 말아 달라며 결기를 다진다. 그러나 「귀거래사」를 읊으려는 의미는 그 결기와 대립되는데 무슨 이유에서 바로 반전시키는 것일까? 혹시 관직을 꾸리고 있는 자신이 도연명에게 겸연쩍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강의 속내는 항상 전원에 대한 동경심으로 터질 듯한 상태로

52) 原註: 촉 땅의 사람들이, "廉叔度가 온 것이 어찌 이리 늦었는가?"라고 했는데, 이는 叔度가 蜀 지역을 잘 다스렸기 때문이다.

53) 原註: 劉禹錫의 「與歌者米嘉榮」시에 "요새 세상에선 연로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니, 수염을 물들이고 후배를 섬기는 게 좋다네(來時世經年老,好染鬚事後生)"라는 구절.

보이는 정황이다. 송사가 없어서 꽃들이 외로울까마는 하강의 일상은 글을 읽으며 대나무조차 아름답게 관조할 수 있는 평정이 유지되고 있다. 이제야 늙은 군수라고 경시하든 수염에 술이 묻었든 간에 그러한 세평을 초탈하여 웃어넘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대목이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논리가 화석화되어 있다시피 하였으니 하강은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계상황에서 귀거래를 다짐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빈곤한 백성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다. 쌀독에 1년 치 양식이 저장될 리가 없는 농가의 삶은 더 어려운 처지로 밀려나고 있었다. 조선의 농업은 19세기부터 소출이 급격히 저하되는 추세였다. 산림황폐로 인한 관개시설의 유실, 토양 유실에 의한 지력 저하, 施肥 부족 등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작동되지 않는 시대였다. 비가 오면 하늘에 감사하고, 가뭄에는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전부였던 시대에 수령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대충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해진다. 하강은 그러한 실정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기에 끊임없이 전원으로 돌아가겠다는 결기를 다졌는지도 모른다.

전원시이지만 「田家」[54]시를 살펴보면 절량농가의 가난이 서글퍼진다. "싸늘해지니 또 쌀독은 빌 것인데 그건 누구 책임인가?"라면서 자책한다. 이처럼 처참한 기아상태에서는 문학적 시평을 할 형편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이 과연 있는 것이며 또한 지켜질 수 있느냐 라는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된다. 하강의 「田家」를 도연명의 「歸園田居」와 유사성이나 연관성을 따져 보려던 생각이 무참해진다.

조선이 지탱한 오백 년은 생존경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저 餓死를 면하며 연명이나 하고 있으면 다행이라는 소극적 방식이었으니 정책이랄 것도 없었다. 생산력 증대 없는 구휼이나 還穀 정책은 한계가 있는 것이었으며, 그나마 19세기 초부터는 환곡제도마저 무너지기 시작하여, 荷江이 군수로 재임하고 있을 때는

54) 『荷江文稿』 卷一, 「田家」: 가을 궂은비에 또 싸늘한 바람 불어오니/ 탄식하나니 세상엔 또 쌀독이 빌 것이네./ 백성들 굶주린 안색은 누구의 책임인가/ 산수 사이에 술 취한 한 늙은이일 것이다(秋來苦雨又凄風　嘆息人間有屢空　斯民菜色伊誰責　山水之間一醉翁).

환곡제 자체가 유명무실하였다.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는다(天不生無祿之人)”는 明心寶鑑의 글귀도 그저 원론일 뿐임에 荷江은 자책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의 주체인 農家는 전원적인 포근함이 싸늘하게 식어있는 정경이니, 하강 역시 가슴이 얼어붙는 심정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하강은 도연명의 「歸去來辭」와 「歸園田居」에서의 문학성과 사상을 새기고 있었다. 陶淵明의 시는 “思想性을 지니고 있으며, 깊은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人生詩라고 할 수 있다. 전원시라 하더라도 단순한 전원의 묘사가 아니라, 그 속에는 참된 인생의 고뇌와 자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전원시”[55]로서 전범이 되었다. 하강은 이를 추종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하강은 自然詩에서조차 관념이 도입되는 조선 전래의 도학적 시풍에서 벗어나서, 사실적으로 농민들이 살고 있는 자연만을 표현하였으니 진정한 전원시를 驅使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吾三田面과 靑蘿面은 보령에서 바다를 끼지 않은 외진 곳이지만 仙遊洞과 隱仙洞 같은 神仙界에나 있을법한 洞名이 있을 정도로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으며 玉溪가 흐르는 수려한 곳이었다. 이곳에는 은거하는 선비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荷江은 틈틈이 선비들을 방문하고 여러 편의 시를 남겼는데 소개는 생략한다.

읍성에서 東行길로 보령군에서도 가장 벽지에 속하는 오서산 남쪽 산자락에 위치한 오삼전면의 한 단면을 그린 칠언절구 「오삼전에서(吾三田)」 작품을 통해서 당시 정황을 살펴보자.

어금니 같은 바위 길로 오삼전에 나서보니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게 지극히 가련하다.
외로운 주막에는 적막한 한낮에 닭이 울고
행인은 말에게 꼴을 주고 잠깐 잠에 빠진다.

巖牙徑仄出吾田　峽裏生涯極可憐
孤店一鷄鳴午寂　行人秣馬暫時眠
〈「吾三田」,『荷江文稿』卷一, 전문〉

55) 윤수영, 2007 「陶淵明의 飮酒詩에 나타난 人生의 意味」, 『중국어문학』 50, 213-225면.

이 작품은 오삼전면 石隅里(현재 황룡리)에 돌모루주막[石隅店][56]을 대입시켜 한적한 벽촌을 묘사하였다. 그래도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지 牛首峙大路[57] 변이지만 인적도 없는 산골에서 대낮인데 갈 생각은 접어두고 낮잠에 빠지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가련한 주민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지경이다. 하강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궁벽한 산골 백성들의 삶을 예리하게 투시하고 있다. 마치 동물들이 쓸데없이 움직이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처럼 이 촌락에는 아예 아이들조차 기척이 없으니 같은 인간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현상인가.

도연명은 "人生은 한번 밖에 살 수 없기에 一生이다. 그 한번 뿐인 인생조차도 빠르게 지나가기가 번갯불 같다(一生復能幾 侯如流電驚)"고 했다. 이렇게 한번뿐인 생명의 일회성이야말로 무엇보다 고귀한 것인데, 빈곤으로 최소한의 생명 유지조차 어려운 인생이라면, 인간의 존엄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荷江은 이러한 상황 속에 목민관으로서 '누구의 책임인가[58]'라고 자신을 혹독하게 힐책하고 있다.

보령의 자연환경은 매우 아름다워 노래가 절로 나오지만, 백성이 결부되면 어느 구석이나 빈곤이 드러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목민관인 荷江의 속내를 편하게 놔두지 않고 있다. 그래도 하강의 보령전원시는 가감 없이 솔직하였기 때문에 사실주의적 自然詩로서 문학성이 부각된다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하강은 시적 거점을 전원에 두고 도연명의 문학성과 사상성을 추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조선 전래의 관념적이고 수기적 시풍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농민들의 생활과 자연을 가감 없이 표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전원시를 驅使한 시인으로 볼 수 있다. 하강의 보령전원시 135편 가운데 12편의 시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하강의 시적 대상은 보령의 전원이

56) 조선총독부, 『조선지지자료, 1911』 충남, 보령, 39면.

57) 조선시대 보령현의 7개 대로 중에 하나로, 홍주 경계인 우수고개에서 황룡리-넙치(廣峙)-청소-충청수영에 이르는 道路 名.

58) 『荷江文稿』 卷一, 「田家」: 斯民菜色伊誰責 山水之間一醉翁

었고, 詩感이 생동하는 것 같이 자연스러워 절로 風格이 돋보이는 보령전원시는 하강의 詩才가 뛰어나기도 했지만 하강이 깊은 애정으로 보령의 전원을 깊이 관찰했기 때문에 詩化된 작품으로서 돋보인다 하겠다.

4. 맺음말

이글은 19세기 말 荷江 朴齊璟 시인이 보령군수로 재임하면서 보령의 자연을 노래한 135편의 시를 '보령전원시'로 특정하여 그 배경과 문학세계를 살펴보고, 지역학적으로도 조명해 본 것이다.

하강은 1897년 2월부터 1899년 1월까지 2년 동안 보령군수로 재직하면서 짧은 임기 동안에 전 생애 작품의 사분의 일이나 되는 135편의 시를 창작하였다. 그러한 동인은 보령의 산천에 대한 애착과 농민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열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하강의 시는 漢詩임에도 보령의 산야를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형상한 田園詩라는 데에서 전통 한시와는 차별성이 있고 또한, 보령전원시는 보령만의 地域學的 가치도 있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에서 조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하강은 詩的 據點을 田園에 두고 있었고, 문학적으로는 陶淵明의 「歸去來辭」적 사상을 존숭하여 그 문학적 동질성이 여러 작품에서 用事의 형태나 和答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언젠가 전원으로 돌아가 땅을 일구며 몸소 농사짓기를 염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강의 작품에는 항상 자연 현상이 녹아 있는 實景이었고 그 배경은 농민들이 살고 있는 터전인 전원이었다.

하강의 '보령전원시'는 陶詩를 존숭하고 추종하는 사상이 담겨진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도연명의 田園詩가 '참된 인생의 고뇌와 自適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人生詩'라는 데에 있을 것이다. 조선의 전통 한시에서는 자연을 주제로 설정한다 해도 대부분 관념적이거나 修己나 忠孝 五常 등 의미를 내포해야 하는 시풍이었는데 반해, 하강은 그러한 전래의 한시 작풍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표현

이 자유 분망했던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하강의 보령전원시에서 보이는 사상적 배경은 梅泉의 山水詩에서 표현된 사실적 자연관과 흡사한 점이 있는데 눈여겨 볼만한 대목으로 차제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과제라 하겠다. 하강은 梅泉과 동시대의 한문시인으로 梅泉처럼 명성을 드날리지는 못하였지만 사실적으로 자연을 形象하였던 시인으로서, 그의 시에서는 과장된 표현이 없고 일상과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관념적이지 아니하고 욕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가난까지도 가감 없이 자연의 일부로 노래하였다. 그래서 그의 시는 자연스럽고 진솔하여 곱씹을수록, 담백한 맛이 우러나면서 가슴속에 더욱 공감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보령의 목민관으로서 보령 산천의 여러 풍광을 그림 그리듯 사실적으로 표현한 詩意는 아름다운 情韻美로 오늘날까지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어 작품의 진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학성이 돋보이는 것이며 동시에 하강의 詩才가 드러난다 하겠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하강 박재경의 보령전원시를 논의하고 시인 하강에 대한 조명을 시도해 보는 것을 의의로 생각하며, 앞으로 하강의 보령전원시에 대한 문학적 논의와 시인 하강이 재조명되기를 기대한다.

논문투고일(2021. 10. 31), 심사일(2021. 11. 18), 게재확정일(2021. 12. 2)

참고문헌

朴齊璟,『荷江文稿』, 규장각중앙연구원 소장.
_____, 李南鐘 譯, 2006『荷江詩譯註』, 도서출판 역락.
保寧郡, 1991『保寧郡誌』.

강경희, 2012「한국과 중국의 歸去來圖에 나타난〈陶淵明 歸去來〉의 隱居生活과 隱者形象」,『중국문학』72, 한국중국어문학회, 21-48면.
김덕수, 2009「寧齋 李建昌의 漢詩 批評 硏究」,『한국한시연구』 17, 한국한시학회, 209-246면.
김명래, 2020「읍취헌 박은의 營後亭子 詩題와 관련된 영보정 창건내력 검토」,『한국학』160, 한국학중앙연구원, 469-501면.
김보경, 2010「蘇軾과 陶淵明의 '만남'— 蘇軾에 의한 陶淵明 典範化를 중심으로」,『중국문학』62, 한국중국어문학회, 91-119면.
김영주, 2012「高麗·朝鮮 田家詩의 史的 展開와 그 審美 特質」,『동방한문학』52, 동방한문학회, 291-316면.
金晋郁, 2017「梅泉 黃玹의 自然詩 硏究」,『문화와융합』 39(5), 한국문화융합학회, 767-794면.
남재철, 2007「自然詩의 意味와 韓國에서의 展開樣相』,『東方漢文學』33, 동방어문학회, 103-138면.
배다니엘, 2000「祖詠 山水田園詩의 풍격특성 고찰」,『중국학논총』(10), 한국중국문화학회, 141-165면.
윤수영, 2007「陶淵明의 飮酒詩에 나타난 人生의 意味」,『중국어문학』50, 213-25면.
이희목, 2010「梅泉 黃玹의 山水詩 小考」,『한문학보』23, 우리한문학회, 3-24면.
황민선, 2015「다산의 전원관 연구 동향」,『국어문학』59, 국어문학회, 99-122면.
권영락, 2010『荷江 朴齋璟 詩文學 硏究』계명대학교 석논.

web site
「1872년지방지도」 면천현, 보령부/ 규장각중앙연구원.
蘇東坡, 陶淵明, 屈原,『莊子』,『史記』 등.
조선총독부,『조선지지자료, 1911』/ 국립중앙박물관.

Abstract

A Study on Hagang Park Je-Kyoung's Pastoral poet in Boryeong

Kim, Myung-Rae *

Hagang Park Je-Kyoung was a poet and government official serving as Boryeong County Governor for two years from 1897 in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Even though Hagang created about 800 Chinese poems, his reputation as a poet in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was not revealed. However, Hagang was an unrivaled poet leaving numerous pastoral poems by respecting Tao Yuanming's poetical style till the last moment of the Joseon Dynasty, and especially, it is marvelous to see that his works written when he was Boryeong County Governor, still show the nature filled with vitality and scenery changing in each season of Boryeong County.

Contrary to most of the government officials of the Joseon Dynasty who were stuck in the conceptual and restrained poetical style by aiming for Chinese poetry in Song-style or Tang-style, Hagang was a pastoral poet who created many pastoral poems while longing for nature and countryside. Like this, Hagang was out of the trend of poetic literature at that time, so he might not receive the proper literary evaluation. As an incumbent government official, he was talking about being stuck in his annual salary as much as five horses. His goal was to do farming for himself by cultivating the land one day, so his poetry fully contained the natural phenomenon itself, and the background of his poetry was always nature.

When Hagang was 72 years old, he served as Teukjingwan(official who helped the king's study) in the Royal Court. However, the period when Hagang was 67-68 years old

* Director, Soyeou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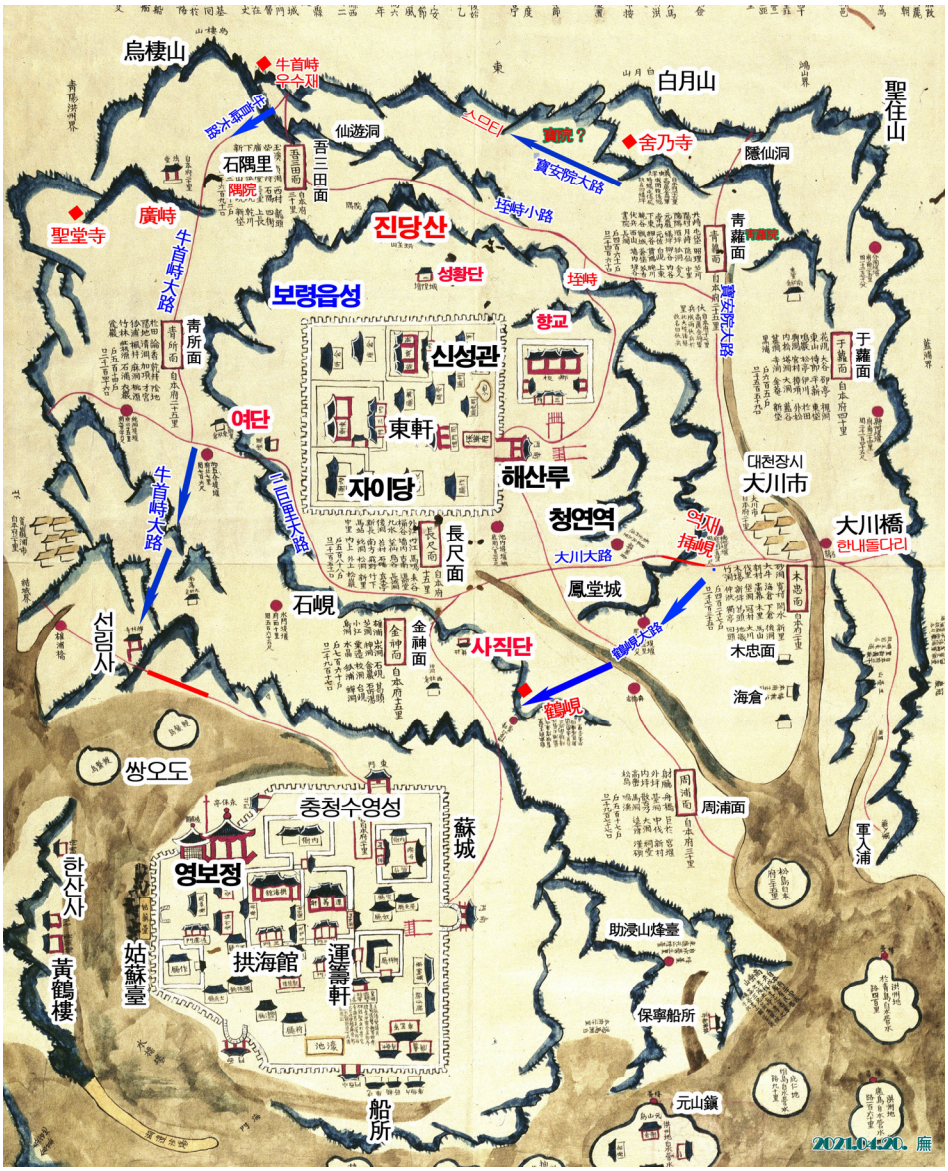
while working as Boryeong County Governor was the most peaceful time with the most activities as a poet. About 200 poems that were 1/4 of Hagang's poems were created for two years while he was working as Boryeong County Governor.

Hagang's poetry not only moves the readers to the center of warm spring in Boryeong nature filled with flowers and singing birds, but also shows the true value as warm and cozy pastoral poetry that could arouse nostalgia. His poetry is filled with the vitality of Boryeong nature 120 years ago, which makes people wonder how come it could be felt so cozy.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examine Hagang's poetic world by selecting his pastoral poem showing the lifestyle of farmers by communing with nature and famous sights in Boryeong at that time.

Key words : Hagang Park Je-Kyoung, Boryeong County, Yeongbojeong Pavilion, Daecheongyo Bridge, Haesanru, Pastoral Poetry

부록 〈그림 1〉 보령군 지도(원본: 1872년 지방지도, 규장각 소장 加筆)



〈부 록〉

〈표 1〉 보령전원시 목록(보령군수 재임기 작품)

原典:『荷江文稿』중에서

順	詩 題	面	五言 絶句(首)	五言 律詩(首)	七言 絶句(首)	七言 律詩(首)
1	新城賦歸後作 三首	59a				3
2	秋後遺懷	64b				1
3	書憤	65a				1
4	春日述懷	67b			3	
5	寒食途中	70b				1
6	新城館詠懷	77a				3
7	新城館夏日	78a				1
8	蘇營					1
9	永保亭					1
10	小岳樓	78b			1	
11	黃鶴樓				1	
12	寒山寺				1	
13	姑蘇臺				1	
14	禪林寺	79a				1
15	蘇營卽事		1			
16	新城卽事					1
17	送次兒進士莘陽歸夢山別業	79b				1
18	別甥姪李進士斗應		1			1
19	訪蔡上舍長默	80a				1
20	靑蘿途中卽事		1			
21	訪靑蘿隱仙洞 申承旨應善				1	
22	訪靑蘿洞蔡友完默不遇見其胤晩歸					2
23	訪靑蘿洞族弟都正未逢而歸	80b			1	
24	大川橋途中					3
25	訪大川李上舍觀稙	81a			1	
26	送朴五衛將龍夏之沔川					2
27	結城査官途中	81b				1
28	朴御使任齋永民留官門外三日穩敍而去					1
29	結城歸路	82a			2	1
30	別朴御史任齋					1
31	從兄來臨喜而有作	82b				1

32	自怡堂 雜詠					2
33	送亞官替發倉之行	83a				2
34	蘇營					1
35	新安雜詠	83b				6
36	遣齋任替行冠巖祈雨祭祭畢大雨	84a				1
37	禱雨而歸走筆	84b				1
38	送朴御史任齋留新元寺					1
39	青淵驛發倉夜歸					1
40	蘇營	85a				1
41	對崔鄉長榮斗夜飮					1
42	新安雜詠					5
43	自怡堂雜詠	86a				3
44	春三月到郡秋七月旣望永保亭夜遊	86b				1
45	次錦南營宣化堂板上韻					1
46	新安述懷				1	1
47	新安秋懷	87a				
48	光武改元詔勅初下之日小臣適待罪 保寧郡布詔 謹頌一篇 粗伸微愧					1
49	自警	87b			1	
50	夜雨				1	
51	和康壽洞高李兩雅詩軸韻					1
52	秋日訪石峴李判尹敎昌夜歸	88a				1
53	思家				1	
54	自怡堂詠懷				2	
55	田家	88b			1	
56	秋砧				1	
57	野望				1	
58	新城秋雨	89a			1	
59	訪石 峴李判尹敎昌					2
60	早發新城	89b				2
61	吾三田				1	
62	錦江				1	
63	宿錦南營邸吏家	90a				1
64	宿閒峙			1		
65	早發定陽					1
66	錦城津	90b				1
67	鳩峙					1

68	訪無名氏				2	
69	道中 卽事	91a				1
70	松下吟				1	
71	訪玉溪朴進士永臣				1	
72	訪馬峙金承旨福漢	91b			1	
73	新城秋日				2	
73	永保亭卽景	92a				2
74	蘇營途中					1
75	贈蔡上合樊川完默	92b				1
76	思家				1	
77	劍城使君金永完九月來訪					1
78	別劍城使君金永完	93a			1	
81	自怡堂秋思				1	1
82	訪趙咸平璋熙	93b				1
83	逢洪荷士承宜時衡留話					1
84	書懷					1
85	訪伏兵川金進士光冕	94a			1	
86	詠悔					1
87	訪洪荷士承宜時衡				1	
88	呈和洪荷士承宜時衡	94b				1
89	登城野望					1
90	老人行				1	
91	贈南溪全座首相默	95a				1
92	述懷			1	1	
93	聖上卽皇帝位					9
94	製錦閣書懷	96b				3
95	洪州途中	97a				1
96	聞蔡進士長默赴冠村李寬稙詩社佳會					1
97	寄蔡進士長默	97b				1
98	竹軒漫吟					1
99	訪族叔晩壽氏山庄					2
100	郡齋春夜	98a			1	
101	病中書懷				1	
102	禮山途中	98b		1	5	2
103	與蔡進士長默邂逅留飮	99a				1
104	自怡堂雜詠	99b				6
105	田家望雨	100b				1

106	春日卽事					1
107	偶唫				2	2
108	錦南留宿	101a				1
109	賑饑民	101b				1
110	別送蓮峯鳴玉					2
111	錦江途中	102a			2	
112	別大興使君李章烈				1	
113	錦江途中					1
114	早發新城	102b				2
115	憶李圭事漢容					1
116	錦江途中	103a			1	
117	錦南邸吏家留宿				1	
118	新城夏日					3
119	鄉長崔榮斗共吟	104a				1
120	新城書懷					1
121	鄉長崔榮斗野話					1
122	製錦閣詠懷	104b			1	
123	次查檢官趙委員駿夏仍寓感懷					1
124	呈族姪定山使君鴻陽					1
125	新城館書懷	105a			1	
126	新城夏夜成主事適見訪					1
127	夏夜漫吟					1
128	五月宋進士姪軒陽之靑武	105b				1
129	詠杏					1
130	四月登東皐臨南溪	106a				1
131	郡齋卽事					1
132	躬往吉峴金承旨福漢家佈傳 中樞院議官薦書					2
133	錦江途中	108a	1			
134	與醒巖雪後共賦					1
135	秋夜	108a	1			
	소 계		3	3	56	138